

월간 내일

May 2025
Vol.600

뮤지션 페퍼톤스



월간 내일

MAY 2025

Vol.600



고용노동부



CONTENTS

하나로 합하여지는 힘,
융합력

SPECIAL FEATURE

통권 600호 발행

내일의
보람

<내>일의 감각이 필요한 시대,
나의 일을 위해
필요한 감각에 관한 이야기

내일의
바람

내일을 살아가기 위해 알아야 할
고용 관련 정책과
활기 넘치는 현장의 소식

내일의
사람

일하는 사람들의 워라밸을 위한
다양한 문화정보

04

나에게 내일은

600호 발행기념 이벤트 당첨자

08

내일 기록관

땀 서리고, 삶 배어들어

12

내일을 위하여

산업과 노동의 발전을 선도한 잡지

16

내일의 내일

APEC 2025 고용상관회의, 11년 만에 한국서 개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함께 그린다”

22

다짜고짜 설문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 융합력

24

일잘라를 만나다

구성원이 주도하는 ‘사람’ 중심의

일터혁신 개인과 조직의 동반성장을 실현하다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30

내일 인터뷰

서정과 실용의 만남, 순간에 머물지 않는다

뮤지션 페퍼톤스

34

MOEL 아카이브

정년 이후 일자리 걱정 뚝!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혜택은?

38

굿 파트너

“혼자든 멀어도, 같이 가든 천 리도 소풍이쥬”

청주고용센터

42

체인지업! MOEL

“장애인 고용, 예술로 말하다”

46

함께 하는 MOEL

더욱 눈부신 내일을 향한 도전은

‘청년을 꿈꾸게 한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자, 최유진 씨

50

내일 로그

시민들의 삶터를 더욱 똑똑하고 편리하게

스마트 도시 전문가

May 2025 Vol. 600

고용노동부 소식지 「월간 내일」

발행처 고용노동부 **발행인** 고용노동부 장관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전화 044-202-7788 **홈페이지** www.moel.go.kr **웹진** www.labor21.kr **기획·제작** 경성문화사



월간 내일
웹진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소식지 「월간 내일」의 저작권은 고용노동부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 책에 실린 모든 글과 그림, 사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52

MOEL 뉴스

56

아보하 스포츠

하늘길에서 누리는 벚꽃놀이
마포구 합정

60

내일 툰

- 어린 나에게 보내는 편지
- 융합력 현대사회의 생존력

62

취향시대

스스로 찾는 나의 색깔
퍼스널 컬러 자가 진단법

64

직장인 어휘 캘린더

부드러운 말이 만드는 직장 문화

66

내일 모의고사



나에게 내일은

「월간 내일」600호 발행 기념으로 독자 여러분께 물었습니다. 2025년 4월 1일부터 4월 23일까지
총 응답자는 2,639명으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중 재치 있는 답변을 소개합니다.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월간 내일」을 구독해 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가능성

빠움

행복

근로기준법 해설판

기회

성장

희망

책임 사랑
변화 도전

나에게
내일은

즐거움

꿈

여행

후가

금지 않은 복권

함께하는 가치

커피 선물

친구 약속

재도약

웃음

호기심 가득한

행해

진출
재

꽃봉오리

과거와 미래

최고

작자권

[]이다

설레임

366일

선물해

또다른 오늘

초코릿 상자

슬픔

설레임

1일 일상

출근 청춘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나에게 내일은 행복에 다가가는 희망이다"

오늘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거라는 희망으로 살면 오늘의 힘듦이 좀 괜찮아진다. 그래서 나에게 내일은 희망이다. 이렇게 오늘을 내일을 기다리는 희망으로 살아가다 보면 행복에 더 한발 다가가 있을 수 있다.

- 박○희 씨

"나에게 내일은 좋은 비서이다"

몰랐던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고, 개인 일정에 참고할 만한 여행 일정까지 세울 수 있게 도와준다. 항상 곁에서 세세한 도움을 주는 든든한 비서와 같다. - 양○승 씨

"나에게 내일은 현재와 미래의 거울이다"

누구에게나 내 일(my job)은 자신의 현재를 풍요롭게 하고 내일(미래)을 꿈꾸게 하는 마법 거울과도 같다. 소시민들은 나와 가족의 행복한 삶을 위해 내일에 몰두하고 기뻐한다. 그러므로 현재와 미래의 거울로서 나를 비춰주는 내일을 사랑하자. 그리고 나와 동행하는 인생의 파트너인 내 일이 있음에 감사하자. 그럼 내일은 그대에게 행복의 마법을 선사할 것이다.

- 김○우 씨

"나에게 내일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힘이다"

내일이 있다는 것은 새로운 기회가 있다. 오늘이 아무리 힘들어도, 실수했더라도 내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될 가능성이 있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말 힘들고 절망밖에 보이지 않아도, 내일은 더 괜찮아질 거야… 스스로 다독이면서 한 걸음 내디딜 용기가 생긴다. - 이○진 씨

"나에게 내일은 나를 위한 희망편지이다"

오늘이 아무리 고단하고 버거워도, "괜찮아, 내일은 더 나아질 거야"라고 속삭여주는 내 작은 희망편지 같아요. 때로는 두근거리는 설렘이 되고, 때로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되는 내일! 그래서 저는 오늘도 '내일'을 기대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모아가는 나만의 찬란한 이야기 「월간 내일」 600호, 우리 모두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 서○유 씨

"나에게 내일은 내 일(My job)이다"

내 일을 찾아주고 소중함을 일깨우는 '내일' 덕분에 오늘도 든든합니다. - 이○임 씨

"나에게 내일은 노동 GPT이다"

우선 600호를 축하드립니다. 매월 어떤 알찬 내용으로 가득할지 궁금해하면서 책장을 넘기고 있어요. 다른 홍보용 사보와 달리 근로자들의 관점에서 근로자를 실제로 도울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옆자리 동지와 둘려보고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 일명 3D 환경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입장은 좀 더 대변해 주세요. 그들의 궁금증도 하나씩 풀어주시는 것도 좋구요. 일차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어떤 환경이 변하면 감시단속적 근로자 지위를 벗어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민 씨

"나에게 내일은 나를 닮은 아이이다"

3년 차 신혼 우리 부부. 아이 가지고 싶은데 행운이 오질 않네요. 시험관 시술로 힘들어하는 와이프, 화도 많아지고 짜증도 많아졌지만 자기 잘못이 아니야! 조금 더 우리 노력해보자. 내일은 이쁜 아이 만나자! 사랑해.

- 전○훈 씨

"나에게 내일은 맥스 커피이다"

마주하고 싶지 않아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중독의 맛
- 송○호 씨

"나에게 내일은 택배 상자이다"

어떤 것이 들어 있을지는 열어보기 전까지 알 수 없다. 기대했던 선물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예상과는 다른 것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 기쁜 일이든, 실망이든, 모든 순간이 내 삶의 일부가 된다. 하루를 열어볼 때마다 새로운 경험이 도착하고, 그 안에서 나만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편○장 씨

"나에게 내일은 드라마 새 시즌 1화이다"

새로운 에피소드 시작, 주인공은 나!
- 이○진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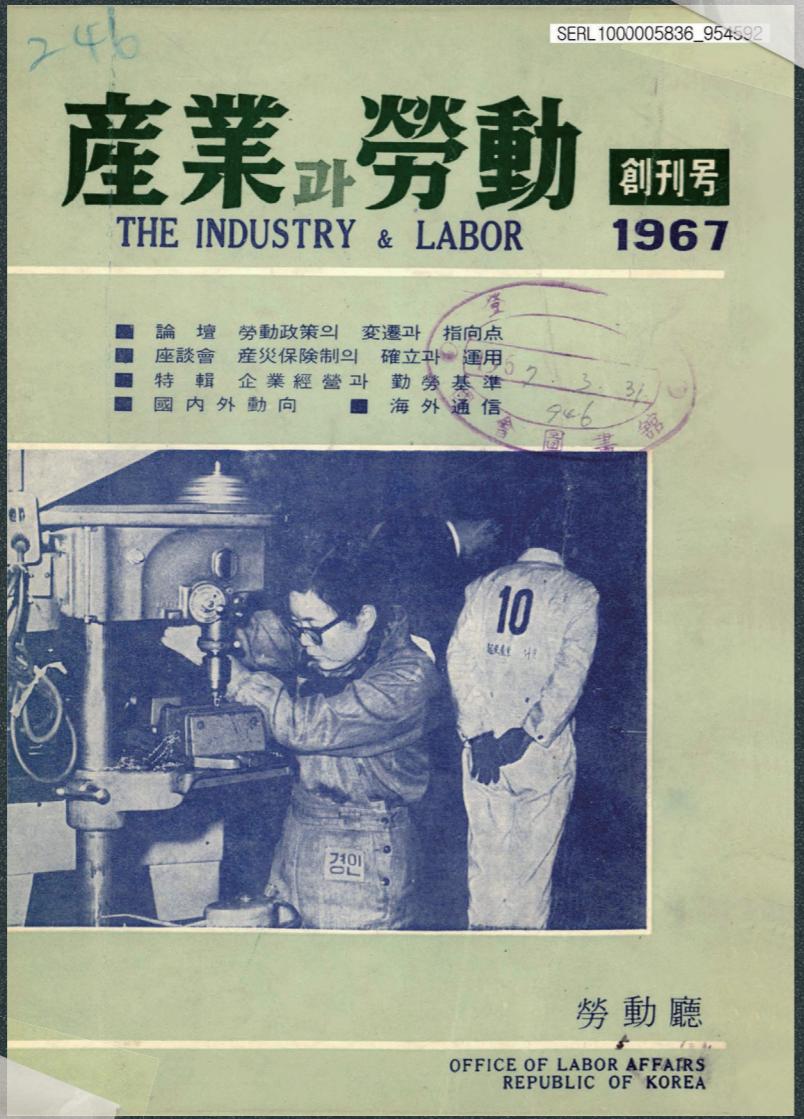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하여 600분에게는 모바일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웹진과 QR코드를 스캔해 확인하세요!

삶 배어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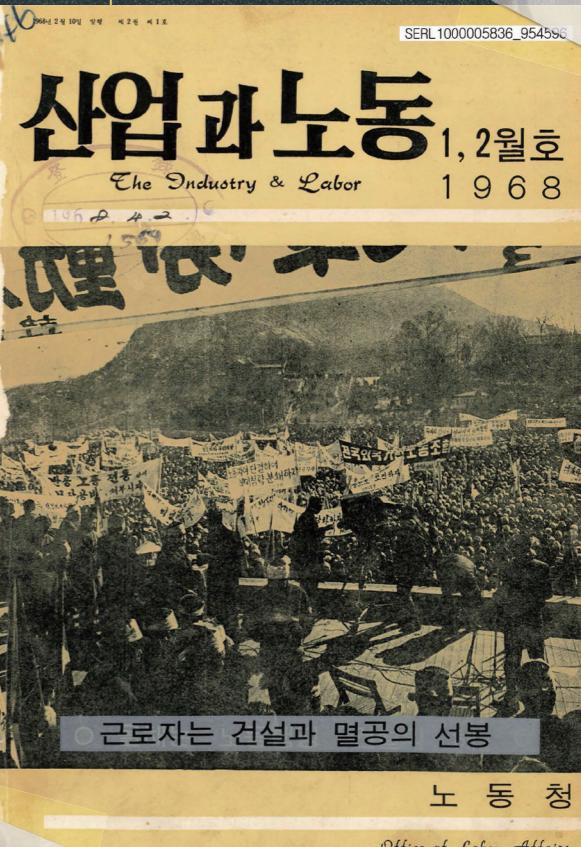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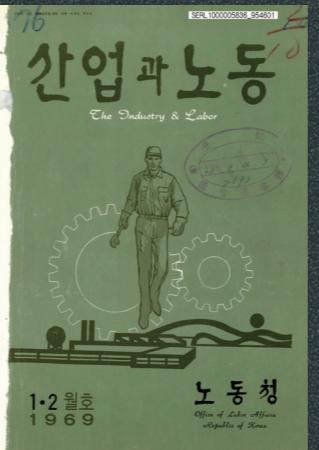
이미지로 보는 「월간내일」

땀 서리고-

내일 기록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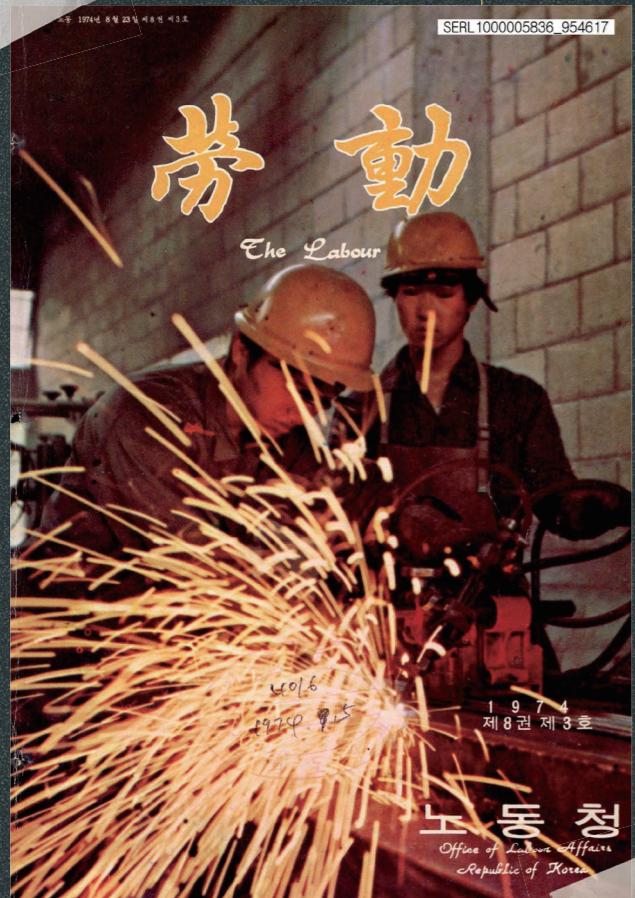
1967년 3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2025년 5월 「월간 내일」이 통권 600호를 발행한다.
58년이라는 세월을 거치며 몇 차례의 제호가 바뀌었고, 격월간에서 월간으로
발행주기가 바뀌기도 했다. 흑백인쇄에서 부분 원색 인쇄를 거쳐 전면 컬러 인쇄가
도입됐다. 그렇게 쌓이는 시간과 함께 지면에는 땀의 숭고함이 서리고,
삶의 소중함이 배어들었다. 600호 발행을 맞아 그간의 변천사를 기록한다.



● 근로자는 건설과 멸공의 선봉
노동청
Office of Labor Affairs
Republic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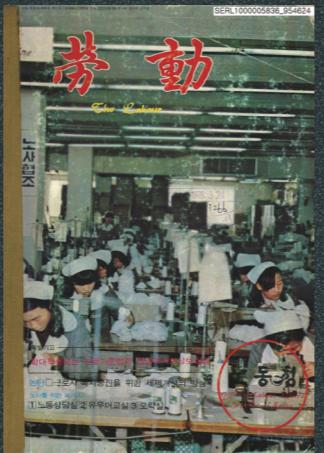
1967~1974 창간하다

정부 수립 직후 사회부에 설치된 노동국은 고용
노동부의 전신에 해당한다. 이후 1955년 보건사
회부 소속이 되었다가 1963년 9월 보건사회부
외청인 노동청으로 독립했다. 독립한 노동청에
서는 1967년 3월 10일 격월간지 「산업과 노동」
을 발행하며, 창간사를 통해 “노동 분야 전반에
걸쳐 정확한 상황판단과 문제해결을 위한 견해
교류의 광장으로 터를 닦고자 한다”라고 발행
취지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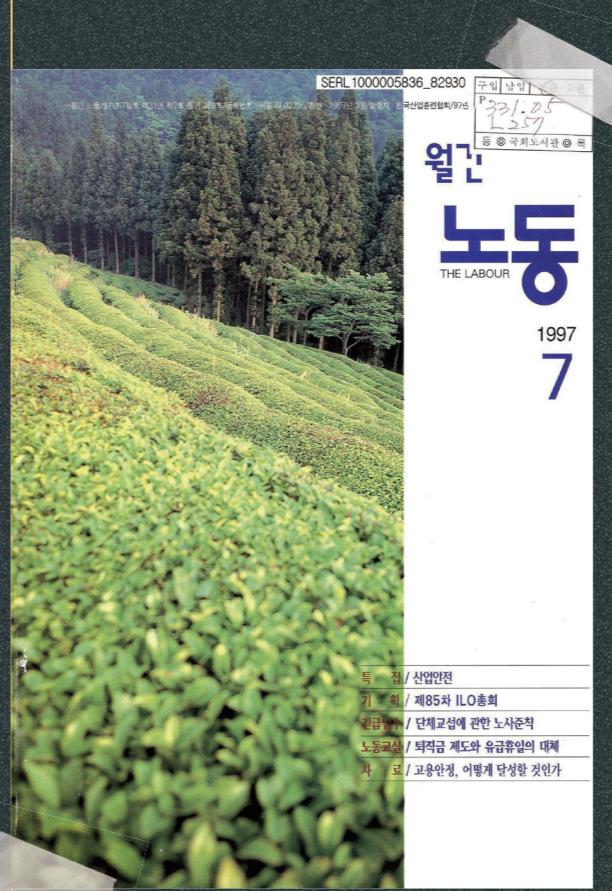
1974~1980 땀의 가치를 담다

사회, 경제, 국제 관계 등 빠르게 '격변하는 70년 대'를 이끌던 근로자의 송고한 땀의 가치를 담아 내기 위해 제호를 「노동」으로 변경했다. 표지 또 한 시대상을 반영하여 '산업의 일꾼'인 근로자가 주인공으로 선정됐고, 현장과 사람 중심의 콘텐츠가 대거 등장했다. 만드는 사람 중심에서 읽는 사람 중심으로 읽을거리와 참여 면이 늘었다.



1980~2010 매월 만나다

1980년대 들어서며 노동청은 노동부로 승격되었고, 두 달에 한 번 발행되던 「노동」은 한 달에 한 번 발행으로 발행주기를 변경하며 월간 시대'를 열었다. 그뿐 아니라 한국산업훈련협회에서 잡지 발행을 대행하면서 독자에게 한 발 더 다가섰다. 당시 신문기자 못지않게 현장을 직접 찾아 취재와 사진 촬영까지 해냄으로써 풍성한 익을거리와 볼거리가 생겼다. 디자인 면에서도 전문 잡지로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2010~2025 내 일로 내일을 밝히다

2010년 7월에는 노사분규·근로감독 등 노사관계 업무와 취업지원·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기능을 명확히 나타내고 고용정책의 중요성을 보이기 위해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개편했다. 이는 잡지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월간 내일」로 제호를 개편하며 성격을 더했다. 노동정책과 지원제도를 알기 쉽고 친근하게 소개하고, 새로운 정책 뉴스를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하며 국민 공감을 이끌어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웹진을 발행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발전해 가고 있다.

산업과 노동의 발전을 선도한 잡지

글 정진석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언론학)

창간, 우리 사회 고용과 노동의 가치관을 반영하다

『월간 내일』은 1967년 우리 사회가 합심하여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던 무렵에 창간되었다. 생산, 수출, 건설과 같은 성장과 국가발전이라는 거대 화두가 노동의 가치에 앞섰던 시대였다. 창간 당시 제호는 「산업과 노동」 산업 발전이 노동에 우선하는 사회 분위기였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은 하나의 개념으로 존재했을 뿐, 오늘날은 당연시되는 노동조합 결성을 통한 노동자의 권익옹호는 먼 나라,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다. 주(週) 단위 근무 시간의 제한 같은 근로기준법도 시행되지 않았을 때였다. 그런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는 땀과 창의력으로 선진 산업국의 반열에 올라섰다. 산업(기업)과 노동이 때로는 갈등과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힘을 합쳐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룩한 것이다.

『월간 내일』은 창간 이래 58년 동안 우리 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이에 따르는 진통과 격변 속에서 잡지 창간의 취지를 살리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통권 600호의 역사는 이 잡지가 고용과 노동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음을 증명한다. 발행 주체인 고용노동부가 「월간 내일」의 역할에 깊은 이해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노동계의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해 왔기에 600호의 지령을 쌓았다고 볼 수 있다.



1974년 8월 재해사례

모든 잡지는 발행 당시 사회의 수준을 가장 잘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가 된다. 그 시대 이념과 지식의 풍토가 잡지의 내용에 담겨 있다. 종이의 질, 인쇄의 정교함 등은 발행 시점 그 사회의 경제를 반영한다. 흑백 간지에 인쇄된 잡지에서 고급 용지에 화려한 컬러 인쇄까지, 디자인과 외관만 보아도 발행 당시 그 사회의 다양한 지표를 유추할 수 있다. 몇만 년 전 화석이나 고대 유물에 인류의 발자취가 담겨 있는 것과 같다. 모든 생명체가 기후나 환경변화에 민감한 영향을 받아 번성 또는 소멸하듯이 잡지도 마찬가지 운명을 맞는다. 「월간 내일」은 흑백 인쇄에서 컬러로 겉모습이 바뀌면서 격월간에서 월간으로 발전했고, 제호도 「산업과 노동」에서 「노동」을 거쳐 「월간 내일」이 되었다. 이 같은 변화는 이 잡지의 성격, 우리 사회 고용과 노동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이다.

잡지, 경제발전에 따라 변화하다

미국은 잡지 왕국이다. 국토가 너무 넓어 신문

이 전국에 배달되기는 어려웠다. 동부에 위치한 수도 워싱턴이나 대도시 뉴욕에서 발행된 신문이 서부 로스엔젤레스에 배달되려면 며칠이 걸려야 했고, 서부 발행신문의 동부 배달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그래서 발달된 매체가 잡지였다. 월간 「리더스 다이제스트」(1922)와 주간 「타임」(1923)에 이어 「뉴스워크」(1934), 「라이프」(1936) 등 우리에게도 널리 알려진 잡지들이 한 때 전성기를 누렸다. 미국을 상징하는 이들 국제적인 명성을 쌓은 잡지들은 전 세계로 보급 범위를 넓히면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거대 잡지도 TV에 이어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이 가져온 언론 환경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으면서 발행을 중단하거나 위축되어 변신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교통수단의 발달, 멀리 떨어진 지역의 동시 인쇄, 실시간에 전달되는 정보의 소통이 가능해지면서 대량 부수 잡지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래서 특수분야만을 다루는 이른바 「스페셜 인터레스트」 잡지, 다른 말로

'전문지' 시대로 바뀌었다. 우리의 경우 「월간 내일」이 바로 특수분야를 다루는 전문지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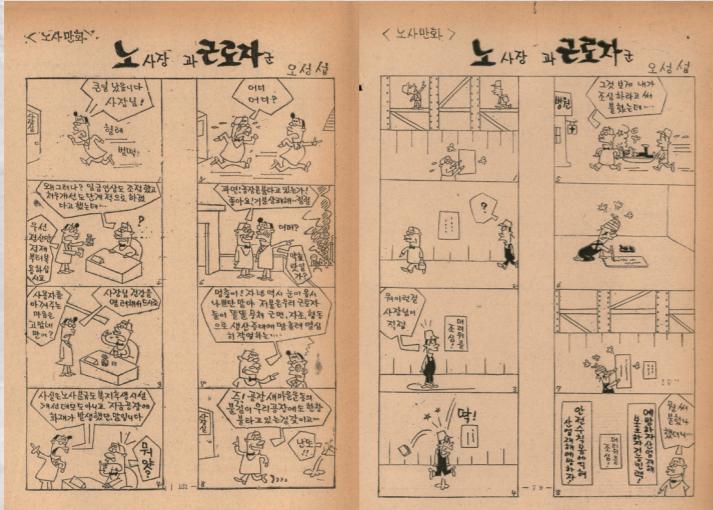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는 6.25 전쟁이 끝나 가던 1950년대 초반부터가 한국 잡지의 브랜드에 해당한다. 미국 잡지 역사와 비교하면 대략 20년의 시차가 있었다. 우리는 1960년대에 '주간지 붐'이 일었다. 1964년 9월 한국일보가 창간한 '주간한국'에 이어 1968년부터는 여러 신문이 경쟁적으로 주간지를 창간했다. 1980년대에는 여러 기업체가 다투어 사보(社報)를 발행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경제발전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었다. 「월간 내일」은 같은 환경에서 탄생했다.

600호 발행 그리고, 고용과 노동시장이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다

책이나 잡지의 누적된 기록은 통권(通卷)이고,

나이는 지령(誌齡)이다. 같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 제호가 바뀌면서도 이어지는 지령으로 계산하면 「월간 내일」의 지령 1호는 1967년 3월에 창간된 격월간 「산업과 노동」에서 시작하여 통권 600호를 헤아리게 되었다. 일제 강점기와 광복 이후에도 우리나라 잡지 가운데는 창간호가 종간호인 경우가 많았다. 겹열난, 필자난, 경영난이 잡지 발행의 세 가지 어려움이었다.

이렇게 「월간 내일」이 58년 세월 동안 제호를 바꾸면서도 통권 600호를 이어온 것은 우리 잡지 역사에는 매우 드문 일이다. 잡지 환경과 가치관을 포함하여 우리 사회는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월간 내일」의 편집 방침은 일관성을 유지해 오면서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다. 일관성이란 고용과 노동이라는 우리 생존에 관련되는 주제다. 노동은 신성하며, 노동의 가치를 깊이 인식하고 시대에 따라



1979년 6월 노사만화



1986년 12월 해외취업근로자 수기



1990년 6월 현장을 찾아서

달라지는 노동의 개념을 탐색하는 역할을 해왔기에 긴 수명을 유지할 수 있었으리라.

노동이라면 육체노동이 먼저 떠오르지만, 현대사회는 육체노동과 함께 정신노동의 중요성도 널리 인식되고 있다. 상징적인 사례로 언론계를 들 수 있다. 1974년 3월, 동아일보 노조 사태가 있었다. 동아일보 기자 33명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다. 언론노조는 회사와의 갈등으로 조합 결성을 주도했던 기자들이 해고당하고, 조합의 합법성 여부를 법원에서 판단을 구하는 사태까

지 갓지만 노조는 와해되고 주된 역할을 맡았던 기자들은 해고되었다. 13년 뒤인 1987년 10월에 한국일보 기자들이 노조 설립에 성공한 이후에야 언론노조가 활성화되었다. 동아일보 (11. 17.), 중앙일보(12. 1.), 서울MBC(12. 9.), 코리아 헤럴드(12. 14.), 조선일보(1988. 10. 25.) 순으로 노조 설립이 이어졌다.

1987년 11월 26일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언노련) 창립되어 언론계 내부와 산업체는 물론이고 정치, 사회, 문화 각 분야에 막강한 영향력을 지니게 되었다. 문화방송(MBC) 노동조합과 지방문화방송노조연합회는 전국조직인 전국문화방송노동조합연맹(1994. 9. 5.)을 결성해서 장기간의 파업을 주도하는 사태도 있었다. KBS와 함께 공영방송 노동조합의 힘이 너무 과대한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마음이 들기도 했다. 단위노조 설립에서 전국에 걸친 대규모 노조연맹에 이르는 언론사의 노조 역사는 정신노동 가치의 변천을 보여주는 사례라 생각한다.

이런 사례를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월간 내일」은 우리의 고용과 노동시장이 다양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고, 이를 수렴하는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그래서 잡지의 수명도 오래 계속된 것이다. 고용과 노동이 활성화되어야 사회가 발전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되새기면서 「월간 내일」의 발전을 기원한다.

정진석 교수 1964년 언론계에 입문, 한국기자협회 편집실장, 관훈클럽 초대 사무국장, 한국외국어대 언론학과 교수·동(同)사회과학대학장·정책과학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복사기도 컴퓨터도 없던 시절 옛날 신문(古新聞)들을 카메라로 찍고 수작업으로 언론 관련 자료집, 문헌 해제, 신문·잡지의 색인들을 만들어 언론사 연구의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APEC 2025 고용장관회의, 11년 만에 한국서 개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함께 그린다"



2025년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제주 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APEC 2025 고용장관회의'가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2014년 이후 11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행사로,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21개 회원국의 고용노동부 장관과 ILO(국제노동기구) 등 주요 국제기구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 회의의 주제는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과 일자리(Sustainable Labour Markets and Jobs for Future)". 이는 디지털 전환, 인구 고령화, 기후위기 등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노동시장 구조를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번 회의는 단순한 단기 행사에 그치지 않고, 장

기적인 고용 정책 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통해 국민적 관심과 기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회의의 핵심 결과로 채택될 공동선언문은 향후 APEC 회원국의 고용 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 각국 간 고용시장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정책 교류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회의는 고용 불안, 노동 양극화, 청년 실업 등 공통 과제에 대한 국제적 협력의 장으로 기능하며,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중요 한 목표다.

미래 일자리의 방향을 묻다 APEC 2025 고용노동장관회의 이야기

디지털 전환과 포용적 고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한국이 중심에 선다. 이 중요한 회의를 다음 대화를 통해 쉽고 자연스럽게 들여다보자.



A 이번 5월에 제주도에서 진짜 중요한 국제회의 하나 열리는 거 알아?

B 제주도에서? 무슨 회의인데?

A APEC 고용노동장관회의야. 무려 11년 만에 한국에서 다시 열리는 거지.

B APEC… 그게 뭐였더라? 이름은 익숙한데 잘 모르겠어.

A APEC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의 약자야. 1989년에 만들어졌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 경제체가 함께 경제 성장과 협력을 도모하는 거지. 한국도 창립 멤버야.

B 오, 그런 큰 조직이 있었구나. 그럼 고용노동장관회의는 어떤 자리야?

A APEC 회원국의 고용노동 관련 장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일자리와 노동환경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는 회의야. 우리나라는 두 번째로 개최하게 되는 거고.

B 꽤 중요한 회의네. 단순한 회의 하나 열리는 게 아니었구나.

A 맞아. 이번 주제는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과 일자리'야. 기술 변화, 고령화, 기후 위기 같은 큰 문제들에 대응하면서 어떻게 모두가 함께 일할 수 있을지 찾는 거지.

B 디지털 전환 이야기 많이 나오겠네.

A 응. 디지털 인재 양성이랑, 소외 없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 고용이 핵심 키워드야. 한국이 이 논의를 이끌게 돼서 더 의미 있지.

B 회의 끝나고 나면 뭔가 결과도 나와?

A 응, 공동선언문이 채택돼. 그게 APEC 각국의 고용 정책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자료가 돼. 단기 행사가 아니라, 국제적 협력의 흐름을 이끄는 계기인 거지.

B 한국이 중심에 선다니, 진짜 멋지다. 제주도 다시 한번 국제 무대에 오르겠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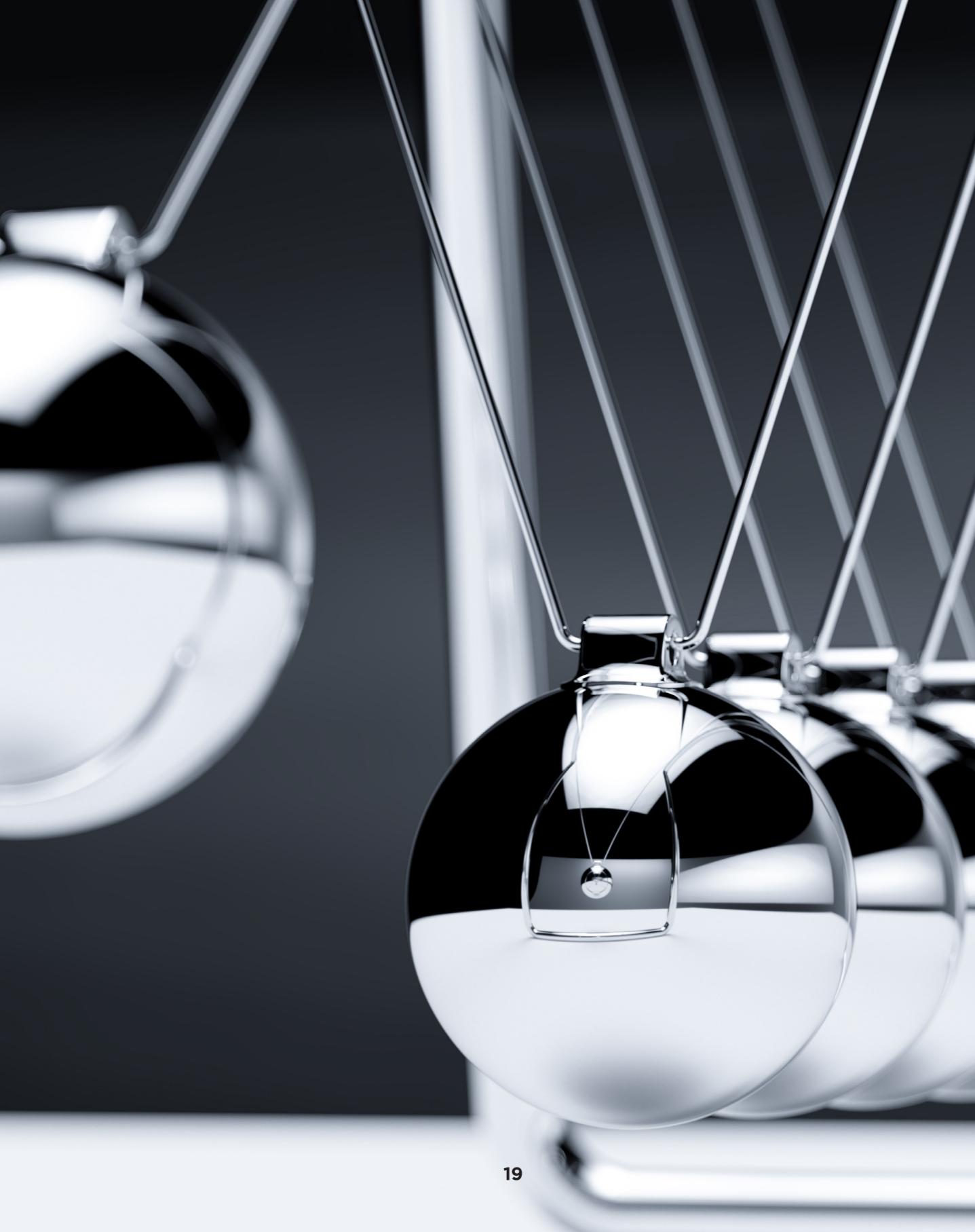
A 그러니까. 이번 회의가 앞으로의 노동시장에 어떤 길을 제시할지, 기대해볼 만하지?

융합형 인재가 미래를 만든다

IT 기술이 전통 산업과 융합하고,
예술과 공학이 손을 맞잡으며,
데이터가 문화산업을 이끄는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 가지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뿐만 아니라,
이를 다른 분야와 연결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과학 혁명을 이끈 뉴턴은 연금술 연구를 통해
물질의 변화를 탐구했고, 이것이 후에 현대 화학과
물리학의 기초를 다지는 데 기여했습니다.
단순히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철학, 수학, 화학을 아우르는 폭넓은 사고 탓에
과학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스타벅스를 글로벌 브랜드로 키운 하워드 숄츠는
이탈리아 여행 중 에스프레소 바(bar) 문화를 경험하고,
이를 미국식 카페 모델과 결합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이탈리아의 따뜻한 ‘카페 문화’와 미국의 빠른 소비문화가
결합한 결과, 오늘날의 스타벅스가 탄생했습니다.

단순한 커피 판매점이 아니라
‘문화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만들어낸 것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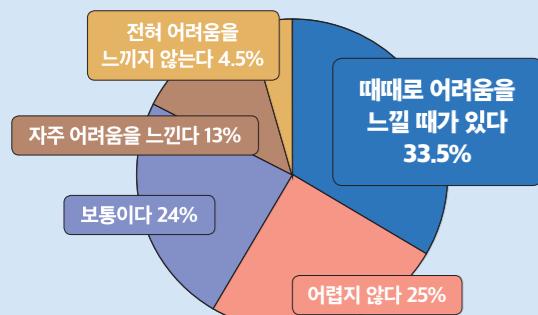
미래 사회는 융합과 연결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변화의 물결 속에서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융합형 인재가 될 수 있을까요?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 융합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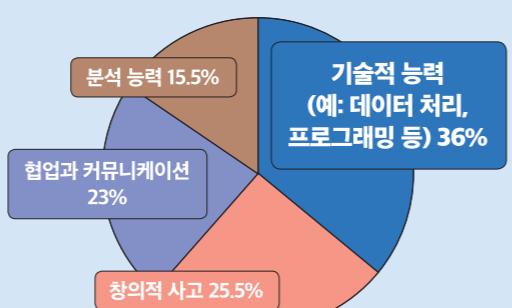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ESG 경영…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 변화 속에서 개인과 조직이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연결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 즉 융합력’이 필요하다.

(글 편집실 설문조사 헤이풀(조사대상 200명, 조사기간 2025. 4. 4.~4.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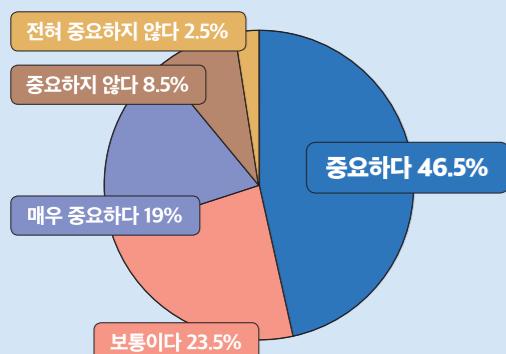
**Q1.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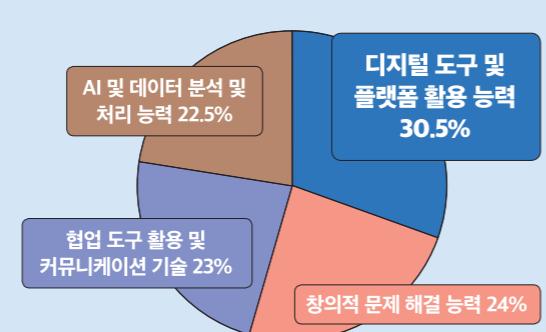
**Q2. 기존의 정보를 새로운 방식으로 변환하여
활용하는데 필요한 스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Q3. 정보를 통해 가치 창출하는데 있어
자기 계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Q4. 앞으로의 정보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미래에
어떤 기술이나 역량을 강화하고 싶나요?**



새로운 정보나 기술을 알게 됐을 때,
동료들과 [] 공유한다!

함께 배우며
상호 정보 교환

퇴직을 준비해야 하는 직장인으로서 융합력은 단순히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지식이나 기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인생 2막을 열기 위한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퇴직 후에도 자신만의 전문성과 가치를 갖고 꾸준히 활동 하려면 기존 경험에 새로운 트렌드나 기술을 입히는 능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몇몇 친구들이 모여 유튜브 제작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소소한 일상을 기록하기도 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박미경 씨

아이스 브레이킹처럼
가볍게 둑!

점심시간이나 잠깐 쉬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이런 것도 있더라”라며 말을 꺼내는 편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기술에도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관심 가져주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도 적용해 볼까요?”라며 질문을 던지면서 공유하면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 용인시
공문식 씨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먼저

기획하면서 새로운 인사이트나 정보를 알게 됐을 때, 그걸 팀원들과 잘 공유하는 건 진짜 중요합니다. 공유 방식은 조직 문화나 팀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왜 중요한지’ ‘왜 필요한지’를 잘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메신저나 이메일로 공유하지만, 너무 자주 보내면 무시당하니까 리듬 조절도 중요한 것 같아요.(하하)

부산시 사하구
김정봉 씨



『월간 내일』에서는 2025년 ‘일의 감각’을 주제로 한 해 동안 사소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6월호에서는 “매우 간단한 분석 한방, 직관력”이라는 주제로 일잘러들의 감각을 알아보겠습니다. QR을 스캔해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상품도 받으세요.

구성원이 주도하는 '사람' 중심의 일터혁신 개인과 조직의 동반 성장을 실현하다

2024년 일터혁신 우수기업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의 조직문화 핵심은 '직원이 주도하는 신뢰와 창의의 문화'다. 이를 위해 '수평적 소통', '심리적 안전감', '자율적 실행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모든 직원이 참여하는 소통 프로그램과 노사 간의 쌍방향 소통, 그리고 일과 삶을 세심하게 배려한 다양한 제도가 일터 혁신을 일상화하는 기반이 된다. 이 과정에서는 구성원들이 마음 놓고 의견을 낼 수 있는 분위기와 실험과 실패를 존중하는 문화가 뿌리내리고 있다.

글 한율 사진 김경수



기술 발전의 핵심은 '인재'. 과학기술인력 육성의 허브로 성장하다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는 창의와 혁신의 주체로서 기술 발전을 이끌고,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핵심 동력이다. 과학기술은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정형화된 지식보다는 문제 해결력, 융합적 사고, 협업 역량을 갖춘 인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특히 인공지능, 바이오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핵심 기술의 개발 및 응용을 선도할 수 있는 고급 인재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Korea Institute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Science and Technology)은 국내 유일의 과학기술 인재 양성 전문기관으로,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인재 기반 조성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은 과학기술인의 평생 학습과 경력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공공 연구기관 종사자와 이공계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정책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실무 역량과 전문 교육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맞춤형 인적자원개발(HRD)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배태민 원장은 이러한 노력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연구자의 생애주기를 반영한 맞춤형 역량 개발 체계를 마련하여 신진 연구자에서부터 중견·고경력 연구자까지 각 단계에 필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구자 개인의 성장을 넘어 국가 전체의 연구개발 역량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공계 대학원생, 박사후연구원, 이공계





장애학생, 외국인 R&D 인력, 고경력 과학기술인 등 다양한 배경과 경력을 가진 과학기술인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과학기술 인재의 저변 확대와 포용적인 생태계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구성원들의 목소리에서 시작된 일터 혁신을 위한 변화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은 ‘조직 구성원의 성장이 곧 기관의 성장’이라는 신념 아래, 직원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조직문화와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수평적 문화를 정착시키고, 구성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일터를 만들어가고 있다.

“일터 혁신의 출발점은 바로 구성원들의 솔직한 목소리를 듣는 일에서 시작됐습니다. 노사 간 교류회, 타운홀 미팅, 내부 설문 등을 통해 근무 제도와 조직문화 개선의 필요성을 확인했으며, 모든 변화는 신뢰와 협력, 지속적인 피드백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인사와 총무를 담당하는 인사총무실은 내부 진단을 통해 일하는 방식, 근무 환경, 제도, 인사 시스템 등을 다각도로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갔다. 그 결과 자율출퇴근제, 재택근무, 근무지 제한 없는 원격근무 등 유연하고 효율적인 하이브리드 근무 방식이 제도화 되었다. 또한 자녀 동반 근무가 가능한 ‘패밀리 오피스’, 육아 시간 유급 지원, 연차의 시간 단위 사용, 임신 전 기간 단축근무 등 구성원의

삶을 존중하는 가족친화 제도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업무 자동화와 행정 간소화를 추진해 물입도 높은 근무 환경 조성에도 힘썼다. 이러한 변화는 직원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졌으며, 2022~2023년 사이 이직률이 25% 이상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인사총무실 안경환 책임 전문관리원이 업무의 보람을 전했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기관 실정에 맞게 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관련 인사행정 시스템과 연계된 이슈들을 검토하고, 사례별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시간이 꽤 걸렸죠. 이에 내부 직원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Q&A 자료집을 제작하고, 의견 수렴을 병행했습니다. 제도 도입 후에는 조직 전반의 ‘유연함’과 ‘워라밸’ 만족도가 확실히 높아졌고, 직원들로부터 ‘너무 좋다’, ‘대단하다’, ‘만족스럽

**일터 혁신의 출발점은 바로
구성원들의 솔직한 목소리를
듣는 일에서 시작됐습니다.**

다’는 반응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도의 정착에 제가 일조했다는 자부심도 생겼습니다.”

또한 패밀리 오피스 제도를 처음 도입할 당시에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직원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도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면서 직원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긍정적이었다. “자녀와 함께 출근해 패밀리 오피스를 이용해 보니 정말 큰 도움이 됐다”,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직원들의 말에, 인사총무실 직원들은 “단지 제도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이 직원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순간을 목격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동적이었다. 이런 환경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큰 기쁨이다”라며 입을 모았다.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은 구성원의 창의성과 자율적인 소통을 촉진하는 공간 조성에도 아낌 없이 투자하고 있다. 옥상정원, 북카페, 교육라운지는 단순한 휴게 공간을 넘어,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옥상정원은 계절마다 변하는 풍경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재충전할 수 있는 장소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처럼 사람 중심의 일터 혁신을 실천해 온 결과,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은 대외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2021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 최우수기관 선정, 국가품



질혁신상 인재개발 부문 대통령 표창, 2024년 가족친화 우수기관 대통령 표창, 고용노동부 일터혁신 우수기관 장관 표창 등 다수의 수상 실적은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과 성과를 뒷받침 한다.

사람 중심 혁신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다!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에는 ‘그라운드 룰(Ground Rule)’이라는 자율 규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도출된 아홉 가지 실천 규범으로, 수직적인 지시보다는 수평적인 공감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업무는 예리하게, 관계는 둥글게’, ‘업무 지시는 WHY에 대한 설명부터’ 등

의 규범은 구성원 간 신뢰를 높이고, 협업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조직 문화로 정착되고 있다. 배태민 원장은 MZ세대와의 소통 방식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MZ세대와의 소통에서는 ‘형식보다 진심’, ‘관리보다 공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MZ 세대는 위에서 시키는 일을 수동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납득할 때 비로소 움직입니다. 그래서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은 ‘공감형 리더십’과 ‘설명 있는 업무 지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이끄는 리더십이 아니라, 함께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은 업무 혁신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 기반의 디지털 전



MINI INTERVIEW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배태민 원장

환(DX)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 해부터 AI 활용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해 왔으며, 구성원들이 창의적이고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 최적화에 힘쓰고 있다. 공공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와 윤리적 AI 활용의 제약이 있지만, 이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신뢰받는 AI 활용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배태민 원장은 “앞으로도 사람과 기술, 정책을 연결하는 교두보이자 혁신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각오를 전했다.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은 과학기술인의 성장이 곧 국가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구성원들과 함께 일터의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하고 이를 현실로 만들어가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이들의 노력이 공공기관 혁신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

“직원이 주도하는 신뢰와 창의의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조직 내 원활한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직급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나올 수 있다는 믿음 아래,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은 직급보다는 아이디어와 의견이 존중받는 조직 문화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최근 강조되는 심리적 안전감을 기반으로 한 두려움 없는 조직을 의미합니다. 모든 구성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만 창의적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서정과 실용의 만남, 순간에 머물지 않는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는 단순한 하나의 기능을 잘해서는 적응하기 어려운 곳이 됐다. 모든 일을 두루두루 하면서도 일정 부분 성과를 내는 인재의 존재가 중요하다. 서로 극단적으로 달라 보이는 부분도 각각의 장점을 취합하고, 단점을 소거하는 방식으로 둘쳐내는 '융합형 인재'가 필요하다. 대표곡 '행운을 빌어요', 예능 프로그램 '문제적 남자' 등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2인조 밴드 '페퍼톤스(Peppertones)'는 이러한 융합형 인재를 표현할 때 연예계에서 가장 먼저 손꼽히는 아티스트가 아닐까.

글 하경현 경향신문 기자 사진 안테나

신재평, 이장원은 각자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의 전산학과를 전공한 빼어난 공학 인재이면서도, 이들은 누구나 기억하는 재기 넘치는 밴드 페퍼톤스를 결성해 음악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들의 능력과 열정은 순간에 머물러 있지 않다. 빼어난 능력과 융합력을 갖고 끊임없이 창조에 대한 열정과 끈기로 음악활동을 마침내 20년째 이어왔다. 지난해 20주년 앨범 발매와 공연으로 팬들과 성과를 기념했으며, 올해 또 한 번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신재평 “요즘 20주년 활동을 지난해 마치고, 소소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최근에는 페스티벌 출연 준비를 하고 있어요. 20년 동안 빠짐없이 무대로 팬분들을 만나 왔어서, 그런 일을 계획하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장원 “지난해는 저희가 자축의 앨범을 내고 20주년의 이야기를 하고, 되짚었던 한 해였어요. 연말까지 공연을 하고 나니 좀 더 훌가분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었죠. 올해도 감사하-

게 여러 제안이 있습니다. 좀 있으면 저희 공연을 담은 영화도 나오고요. 개그우먼 조혜련 씨와 함께하는 ‘메커니즘’이라는 유닛그룹 활동도 계획 중입니다.”

카이스트 전산학과 99학번 동기인 두 사람은 원래부터 음악에 관심이 있는, 어딘가 ‘색다른’ 공부벌레였다. 신재평은 경기과학고 시절부터 야간자습을 빼먹고 나가 서울 홍대 클럽에서 공연을 보러 다녔고, 카이스트의 하드록 동아리 ‘강적’에서 활동했다. 대전과학고에서 천문동아리 활동을 하던 이장원은 카이스트 진학 후 텅티카 동아리 ‘여섯 줄’에서 활동했다.

신재평 “음악을 포함한 예술은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즐길 수 있는 일이죠. 과학자들도 오락적인 취미는 하나씩 있었어요. 어떤 전공을 갖든 음악은 보편적인 오락성을 갖고 있죠. 저희도 당연히 음악이 좋아서 시작했고, 계속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지금의 저희를 만들었습니다.”





색다른 공부벌레인 두 사람이 음악으로 뭉치게 된 것은 '필연'이었다.

이장원 “저희는 음악을 좋아했어요. 과학공부를 하다가 만났지만, 음악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음악을 나눠 들었죠. 재평이와 이 음악이 왜 좋은지 분석하길 즐겼던 것 같아요. 음악을 공부하고 분석하다 보니, 결국 같이 만들어보자는 결론이 나왔죠.(웃음)”

음악을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고유의 진동수를 가진 12계의 음계를 조화롭게 구성하는 작업’이다. 원래 12음계의 시초가 수학자 피타고라스가 창안했다는 사실도 유명하다. 이렇듯 음

악 안에도 단순한 수학적, 과학적 구조가 숨어 있다. 이들은 이 기초 위에 조금 더 ‘듣기 좋은’이라는 주관적 감상을 위한 여정을 떠난다. 이들에게 음악과 과학은 다르지 않다.

신재평 “실제 전자음악의 경우나 장르의 혁신을 동반하는 경우는 공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야지만 장르를 잘할 수 있어요. 음악과 과학을 굳이 반대되는 개념이라 보지 않고, 이를 융합하는 능력도 필요한 거죠.”

이장원 “사람들이 알고 있는 화음도 단진동의 배수를 따져가며 3도, 4도, 5도 이런 식을 쌓는 일이죠. ‘아름답구나’하는 감성은 의외로 정성적인 계량이 가능해요. 하지만 음악은 문학이나 미술과 다르게 청각이라는 서로 다른 감각을 통해 접촉해요. 그래서 과학을 하는 저희에게는 꽤나 흥미롭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프로그래머가 꿈이었던 신재평은 음악에도 고스란히 자신의 전공을 살렸다. 그는 컴퓨터로 가능한 미디 작업이나 이를 배열하는 시퀀싱(Sequencing) 그리고 사운드를 갈고 닦는 믹싱이나 마스터링 등에 장점을 보인다. 전산학과 출신으로 경영공학도 전공한 이장원은 조금 더 음악이 세상과 맞닿는 접점을 연구했다.

신재평 “실제 공부하는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됐어요. 하다못해 작업을 하다가 컴퓨터를 고칠 때도 공학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하죠. 저희의 경우에는 컴퓨터 용어를 가사나 제목에 쓰기도 하고, 물리학적이나 기상학적인 이야기를 주제로 노래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흔히 모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육각형 인재’라고 하는데 페퍼톤스의 멤버들은 그에 가깝다. 하지만 정작 신재평과 이장원은 자신들이 ‘육각형 인재’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다.

이장원 “육각형 인재. 과분한 말씀이네요.

예전에 ‘통섭(統攝)’이라는 말이 유행했는데 ‘모두를 도맡아 다스린다’는 뜻이죠. 당시에는 전문가가 그 영역이 깊어져서 깊이 있는 지식이 있을수록 대중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아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문가와 비전문가 사이에 연결고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했어요. 음악에서 ‘육각형 인재’가 그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희가 꼭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순간 재미있는 질문이 떠올랐다. ‘융합형 아티스트’로 각광받고 있는 페퍼톤스가 실제로 ‘융합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서정적인 신재평과 실용적인 이장원 사이의 대답이 갈린다.

신재평 “요즘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의 충돌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 서로의 생각을 섞을 수 있는 기기가 있으면 어떨까 생각해요. 서로의 생각도 들여다보고, 생각을 섞어서 대립을 줄이고 이해를 늘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이장원 “차에 관심이 많은데요. 항상 집에 서 일을 하다 보니 음악여행을 할 때 작업하기 편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집에 있는 음악기기를 전기차의 형태로 가지고 나올 수 있게, 차와 음악장비를 ‘융합’한 장비가 있다면 좋겠습니다.(웃음)”

20년의 가쁜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쉬는 그들. 이지만, 하루가 끝나고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듯 그들에게는 새로운 아침이, 새로운 날들이 시작됐다. 한편, 「월간 내일」의 독자들에게도 인사를 전했다.

신재평 “올해는 영화도 개봉하고, 새로운 경험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계발을 하는 기분으로 부딪쳐서 배우고 싶어요. 성장하는 페퍼톤스, 성숙한 음악인으로서 저희의 21주년을 열고 싶습니다.”

이장원 「월간 내일」독자 여러분. 늘 노력하시겠지만, 자신의 분야에만 치중한 것보다 흥미로운 것이 있다면 상식선까지는 지켜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반드시 있지 않을까요? 익숙하지 않은 것들에 관심을 가지시는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과학도다운 창의적인 발상부터
아티스트 특유의 서정적인 모습까지
다양한 면모가 기대된다.**



정년 이후 일자리 걱정 뚝!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혜택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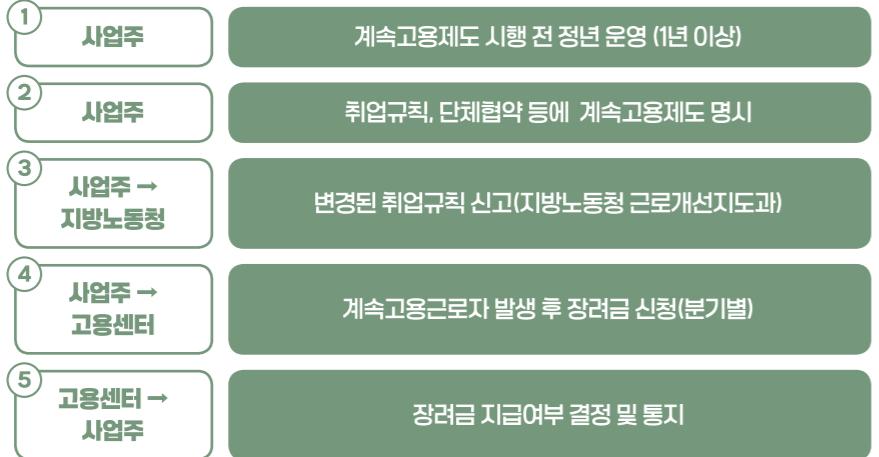
급속한 고령화와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가 고령자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본격 확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부터는 지금 대상과 금액이 확대된다.

정리 편집실 자료 <2025년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가이드북>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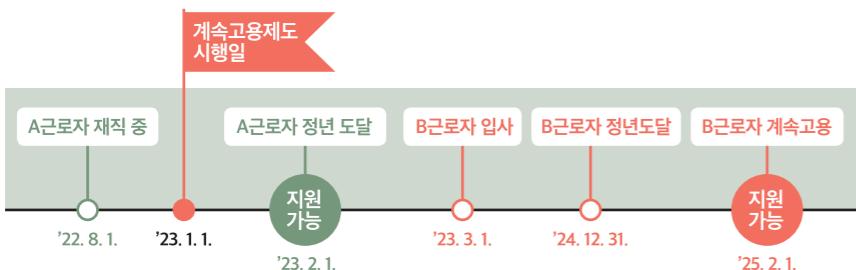
지원대상 근로자

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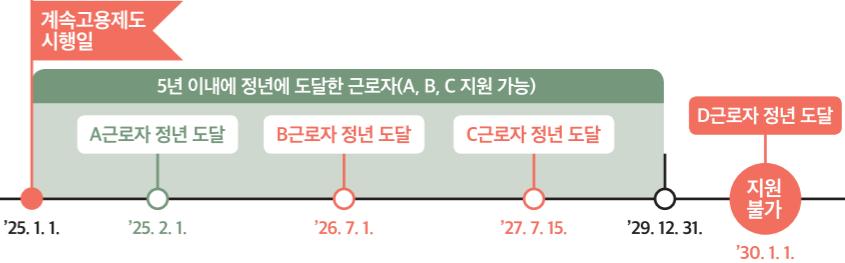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무해야 한다'라는 요건은 2025년 1월 1일부터 삭제되어

계속고용일이 2025년 1월 1일 이후인 근로자부터는 해당 요건 충족 필요 없음

✓ 시행일 전부터 근무해 온 A는 지원 가능, 이후에 입사한 B도 계속고용일이
2025년 1월 1일 이후이므로 지원 가능('25년 개정)



✓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지원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전에 이미 정년에 도달(A근로자)한 경우에는 지원 제외



지원금액

- 지원금은 분기 단위로 산정합니다.
- 계속고용제도 적용을 받아 재직 중인 피보험자 수에 월 지원금인 30만 원을 곱합니다.
- 월의 중간에 입·퇴사하여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한 날짜에 30만 원을 곱합니다.

지원한도

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 수는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수 및 최대 3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와 최대 30명 중 적은 인원을 지원

지급기간

- 지원대상 근로자별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각각 3년까지 지원합니다.
(24. 1. 1. 이후 계속고용된 근로자부터 적용)

※ 다만, 계속고용된 날이 2024년 1월 1일 전이라도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종전의 지원
기간이 남아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한해 지원)

"홀자문 멀어도, 같이 가문 천 리도 소풍이쥬"

진정한 상생은 개인과 개인뿐 아니라 정책과 공동체가 함께 결승선으로 달려가는 과정이다.
몇 초의 승부로 끝나는 단거리 레이스가 아니라 수년, 수십 년을 두고 달려가는 마라톤과 같다.

한 사람의 우승자가 아니라 모두의 완주를 위해 지원을 나누고,
기회를 연결하는 이들이 있다. 청주고용센터, 고용 어벤져스를 만나보자.

글 자유미 사진 김규남

지역의 기회를 발굴하고 충북의 기업을 키(Key)-울

청주고용센터가 담당하는 청주권역은 청주를 중심으로 북부권(진천, 괴산, 증평)과 남부권(보은, 옥천, 영동)으로 구분된다. 이 지역은 오송 생명과학단지의 바이오헬스 산업, 오창산업단지의 스마트 IT 산업, 송두산업단지의 식품 산업, 옥천의 의료기기 산업 등 다양한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다.

그러나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비해 인력 수급이 쉽지 않은 중소도시 특성상,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필요한 인재를 모두 확보하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청주권역은 전국 평균보다 실업률은 낮고 고용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청주고용센터의 '키움 컨설팅팀'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키움 컨설팅팀은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을 중심으로 충청북도, 충북중소벤처기업청, 충북기업진흥원, 충북테크노파크,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지역 내 산업 지원기

관들이 모두 참여한 협업체다. 이들은 공동 컨설팅, 기업 설명회, 인재 채용, 사례관리, 우수기업 발굴 등 7개 세부 사업을 통해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김상관 취업지원총괄팀장은 "기업도약보장패키지는 구인난을 겪는 기업을 위해 채용부터 근로 환경 개선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주고용센터는 이 정책을 현실에 맞게 풀어내기 위해 각 기관과 지원정책을 하나로 모으는데 집중했고, 그 결과물이 바로 키움 컨설팅팀입니다"라고 설명했다.

키움 컨설팅팀은 단순한 컨설팅에 그치지 않고, 각 기관이 제공하는 기업 지원정책을 총정리한 가이드북을 제작해 기업 담당자가 손쉽게 정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가이드북에는 인재 채용 장려금, 자금, 판로, R&D, 균로·산재, 시설지원 등 11개 분야에 걸친 총 178개 사업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 상담을 통해 취업 알선과 교육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며, 실제 성과로

원스톱 일자리
어벤져스.

청주고용센터

이어졌다. 2024년 하반기 기준으로 32개 기업, 420여 명의 취업 알선(지난해보다 32.1% 증가)이 이루어졌다.

청주고용센터는 앞으로도 지역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 모델을 지속 확산할 계획이다. 키움 컨설팅팀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구직자를 위한 섬세한 올케어 서비스

청주고용센터가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올케어(All-Care)' 서비스를 펼치며 주목받고 있다. 특히 '고용촉진장려금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실업 해소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이 사업은 일자리가 절실한 구직자에게 실제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기업에는 필요한 인재를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민취업지원팀 서은혜 팀장은 이를 위해 복지기관, 사회적기업, 공공기관, 상공회의소 등 10개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다양한 공동 행사를 기획하고 있으며, 자립 준비 청년의 참여를 극대화하고 있다.

한편 직업훈련과 취업 연계를 위해 '직무체험 탐방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청주고용센터는



훈자 가면 힘들어도 같이 가면 멀리 갈 수 있는 것처럼 작은 아이디어가 모여 혁신이 된다.

서울에서 청주로 이전한 한국전기공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 훈련 희망자와 지역 내 구직자에게 직무 설명과 체험 기회를 무료로 제공했다. 현재는 IT 관련 기관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분야에서 체험이 가능하다.

청주고용센터는 취업이 성사된 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간다. 취업자의 장기근속율 유도하기 위해 기업을 직접 방문해 컨설팅을 실시하고, 기업과 취업자 양측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실적으로도 입증되고 있다. 자립 준비 청년 지원성과는 전국 대비 절반 이상을 청주에서 기록했으며, 실업급여 장기수급자와 구직도약패키지 연계를 통한 취업 지원, 현장 방문 컨설팅 등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신해민 기업지원팀장은 "훈자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외부 조직과 기관이 서로 하는 일을 공유하고 교류해야만 가능한 성과입니다"라며 "우리 센터는 배려와 양보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조직 문화를 갖추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청주고용센터의 이 같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은 지역사회 고용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의 모범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다.

작은 아이디어가 만드는 큰 변화, '배려 행정' 논길

청주고용센터가 행정기관을 넘어 '아이디어와



배려가 샘솟는 일터'라는 점이 눈에 띈다. 대내외 협력체계뿐 아니라, 실무에서 나온 작은 아이디어 하나하나가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며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센터 내부에서는 직원들의 작은 제안도 빠르게 실행에 옮겨지며 눈에 띠는 변화를 끌어내고 있다. 직업능력개발팀 최선 팀장은 "청주 지역의 직업훈련기관을 훈련 직종별로 정리한 디지털지도 및 디지털 리플렛을 제작해 상담자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QR코드를 찍으면 원하는 훈련기관의 위치, 개설 과정, 운영 시기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상담 도중 한 직원이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말에 착안해 실제로 제작하게 됐습니다"라며, 실무자 중심의 빠른 실행력을 강조했다.

고객을 위한 작은 배려가 업무 효율로 이어진 사례는 또 있다. 업무 시작 전부터 몰리는 실업급여 신청자들을 위해 대기자석에 번호표를 부

착한 것이다. 실업급여팀 김윤숙 팀장은 "센터 복도, 계단 등 좁은 공간에서 오래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 아침 8시부터 대기실을 개방하고, 도착 순서대로 앉을 수 있도록 번호를 붙였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지만 고객 불만이 현저히 줄었고, 접수도 훨씬 빨라졌어요. 이런 질서 있는 모습은 아마 우리 센터만의 자랑이 아닐까요?"라며 웃음을 보였다.

김승희 청주고용센터 소장은 "이렇게 내외부 기관이 함께한 협의체가 형식이 아닌 유기적인 협업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모두의 진정성 있는 소통과 책임감 덕분입니다. 기업과 근로자, 지역사회, 그리고 유관 기관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고민했기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키움 컨설팅을 비롯한 청주고용센터의 활동들이 단순한 논의의 장을 넘어 실질적인 변화와 상생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소회를 전했다.

"장애인 고용, 예술로 말하다"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 맞아 클래식 공연·미술 전시 개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을 맞아, 예술을 통해 공감과 소통을 나누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장애인이 일터에서 행복을 느끼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이 함께 하길 기대한다.

글 차유미 사진 김신동



**편견의 안경을 벗을 때,
세상은 비로소 제 빛깔을 드러내고
곁을 알 수 없는 가능성이 펼쳐진다.**



따뜻한 봄기운이 감도는 4월이지만, 경기 침체와 청년실업의 여파로 체감 경기는 여전히 냉랭하다. 이런 가운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실제 고용 확대가 움트기도 전에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4월을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고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올해는 특히 예술을 매개로 장애인의 역량을 소개하고, 대중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난 4월 4일과 5일, 충북 오송역에서는 '발달장애인 예술작품 전시회'가 열렸다. 이번 전시에는 김기정 작가의 <용궁>, 김성찬 작가의 <노을과 자동차> 등 발달장애 예술인 8명의 작품이 전시되어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전시를 관람한 한 시민은 "작품이 너무 밝고 아

름다워 발길을 멈추게 했다"며, "이런 작품들이 발달장애인에 의해 창작됐다는 사실에 놀랐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반성하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4월 28일에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광장에서 미술 전시회와 함께 '힐링 클래식 콘서트'가 열렸다. 공연은 발달장애인 연주자들로 구성된 혼악 앙상블 '브릿지온 앙상블'이 맡아, 케이팝과 영화음악 등 대중에게 익숙한 곡들을 선보이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장에는 커피차도 운영되어, 방문객들에게 무료 음료가 제공되는 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은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예술을 통한 소통이 편견을 허물고 고용 확대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림으로 편견을 지우는 청년

발달장애인 예술작품 전시회 참여작가 최석원 씨

고요한 아이가 있었다. 말 대신 그림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아이. 사람들에겐 낯설 수 있는 방식이었지만, 그는 선과 색, 작은 동물들로 가득한 세계로 조용히, 꾸준히 마음을 전했다. “학창 시절 정식으로 그림을 배운 적은 없어요. 방과 후 미술 수업에 참여한 정도였죠. 그래도 선생님은 제게 재능이 있다고 하셨어요.”

최석원 씨는 발달장애인인 청년이다. 친구 보다 곤충과 동물이 더 편했고, 말보다 그림이 더 자연스러웠다.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를 고민하던 그는 ‘밀알복지재단 작가 모집 공고’를 만났다. 서류를 내고 면접을 본 뒤, 지금은 브릿지온 아르떼 소속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이번 발달장애인 예술작품 전시회에 참여했다. 그는 작품을 통해 “장애는 예술을 가로막는 벽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여는 문”임을 전하고 싶었다.

출품작은 ‘동물들의 카페’. 공룡과 다양한 동물들이 나란히 앉아 음료를 마시는 유쾌한 풍경이다. 위계도, 경쟁도 없는 카페. 무섭고 힘센 동물은 없고, 작고 귀여운 동물들이 중심에 앉는다. “제 그림 속에선 모두가 사이좋게 지내요. 작은 동물들도 당당히 자기 자리를 지켜요.”

그림을 그리는 시간은 언제나 설레고 즐겁다. 수줍은 성격이지만, 그림 앞에 멈춰 관람객이 미소 짓는 순간 그는 빛나는 예술가가 된다. 그의 꿈은 단순하다. 꾸준히 그리고, 감동을 전하는 것. 전시를 찾아다니고, 새로운 기법에도 도전한다. 마지막으로, 석원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는 발달장애인인 청년 작가입니다. 장애가 있어도, 기회와 응원이 있다면 누구나 멋진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어요. 모든 장애인이 꿈꾸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세상을 저는 그림으로 계속 그리고 싶습니다.”



봄날, 세종청사 광장에서 울려 퍼진 희망의 선율

힐링 클래식 콘서트 바이올린 연주자 박세현 씨

봄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은 오후. 브릿지온 양상불의 ‘힐링 클래식 콘서트’가 울려 퍼졌다. 발달장애인 연주자들이 선사한, 봄날의 선율 같은 무대였다.

그중에서도 활한 미소로 무대를 밝힌 이는 바이올리ニ스트 박세현 씨. 작은 악기를 꼭 쥐고 정교한 보잉으로 음악을 빚어내며 말했다.

“연주하는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해요.”

음악의 시작은 초등학교 6학년, 할머니가 건넨 오케스트라 모집 안내지였다. 처음 접한 악기였지만, 빌린 바이올린으로 오디션을 봐 입단에 성공했고, 그곳에서 지금의 지휘자 유원석 선생님을 만났다.

“그 이후로 삶이 많이 달라졌어요. 음악이 저를 바꿨고, 이제는 무대에 설 수 있게 되었죠. 관객 박수를 들을 때마다 벽차올라요.”

지금 그녀는 브릿지온 양상불의 퍼스트 바이올린 주자.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연습이 있었다. 빠른 곡에 손이 꼬이면 다시, 또 다시 손 떨림을 줄이려 식사량을 늘리고, 아령으로 손가락 힘을 길렀다.

“박자가 안 맞을 때도 있지만, 함께 맞춰가다 보면 ‘지금이다!’ 하는 순간이 와요.”

세현 씨에겐 오래된 꿈이 있다. 2023년, 가수 알리와 함께한 홍보영상 촬영의 감동은 아직도 선명하다. 언젠가 알리와 뉴욕 카네기홀 무대에 서고 싶다는 소망을 품고, 오늘도 한 음씩 정성스레 쌓아간다.

“저를 통해 발달장애인도 음악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 연주가 누군가에게 즐거움이 되었으면 해요.”

작은 바이올린에 담긴 그녀의 삶과 꿈. 그날 세종청사에 울려 퍼진 선율은 음악이 아니라, ‘가능성’이라는 이름의 이야기였다.

더욱 눈부신 내일을 향한 도전은 '청년을 꿈꾸게 한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자, 최유진 씨



지난 2024년 12월,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내일을 여는 청년의 날'에서 청년 세대의 공감을 자아내며 널리 박수받은 주인공이 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청년 부문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은 최유진 씨다. 지원사업과 함께 퇴사 이후 겪은 좌절감에서 벗어나 용기 있게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는 그의 경험을 공유한다.

글 오민영 사진 오충근

Q 지난해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이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최근 일상이 궁금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024년 4월 이래 약 5개월 간 함께한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참으로 값진 기회였습니다. 밀착 상담을 비롯한 각종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한층 폭넓은 관점으로 진로를 고민할 수 있었던 까닭입니다. 또한, 사업 운영기관인 안양시 청년두드림공간의 청년 세대 취업 역량 강화와 구직 지원 등을 마주하면서 자연스레 우리 사회에서 긍정적 영향을 발휘하는 공공 부문에 관심이 생겼죠.

따라서 관련 분야 취업에 도전해 사업 참여 4개월 차인 지난해 7월 안양문화예술재단 대시민 서비스 업무를 맡아 6개월 기간제 계약직을 경험했습니다. 현재 공공기관 홍보 영역에서 활약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중심으로 구직에 나서고 있답니다. 동시에, 수영과 프리다이빙으로 체력을 높이며 활기차게 지내고 있어요.

Q 해당 지원사업에 처음 신청한 계기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저널리즘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인터넷 신문사 기자로 활동하면서 언론이 곧 나의 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퇴사 이후

문득 이대로 괜찮은지, 혹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어떤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더라고요. 이울러 급격히 침체한 자신감을 회복할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죠. 안양시 카카오톡의 안양청년광장을 매개로 처음 접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이 제게 절실한 '이탈'이었던 이유입니다. 막상 신청하고 난 다음엔 과연 잘한 선택인지 내심 겁나기도 했지만, 미룰 수 없는 환경에선 어떻게든 해내기 마련이라는 '가두리 법칙'을 믿어 보기로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망설이지 않고 시도하길 잘한 셈이에요.(웃음)

Q 다채로운 청년도전 맞춤형 프로그램을 경험한 소감은 어떤가요?

청년도전지원사업 가운데 15주 이상 진행하는 중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나날이 자극받고 성장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양하게 구성한 대면 강의는 자기소개서 작성이나 면접 준비 등 취업 콘텐츠뿐 아니라 창업 또한 실전 중심으로 깊이 있게 다루며 흥미를 자아냈어요.

덧붙여 작년 5월엔 모든 참여자가 한 팀을 이뤄 2024 안양시 청년안정 일자리박람회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입사하고 싶은 기업 부스에 방문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거나 면접에 나서 보는 경험은 의욕을 가득 북돋웠답니다.

특히 팀 단위로 움직이면서 저와 같은 외향형
못지않게 내성적인 참여자까지 용기를 얻는 듯
해 보기 좋았어요. '역시 최고'라며 절로 엄지를
척 올릴 수밖에 없더라고요!(웃음)

**Q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긍정적인
변화를 손꼽는다면요.**

앞서 소개한 일자리박람회처럼 기업탐방 차원
으로 모든 참여자가 다 같이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태성산업을 견학한 적이
있어요. 유명 화장품 브랜드에 용기를 납품하
는 이곳에서 제조 과정뿐 아니라 많은 근로자
가 구슬땀 흘리며 일하는 모습을 접하니 새삼
대단하고 경이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캘리그라피 수업에서 각자 앞으로
의 계획과 포부를 한 줄의 문구로 완성해 작은
전시회를 열었는데, 작품마다 열정이 담겨 있어
감동적이고 끊임없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나
통계에 따르면 우리 청년 세대가 구직이나 사
회활동을 하려는 의지가 없다지만,实은 저마다
목표를 세우고 힘껏 나아가는 중이었더라고요.
아울러 사업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참여자 중
제가 가장 먼저 기간제 계약직 취업에 성공했
다고 다들 모여 열었던 축하 파티가 따스한 기
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서로 잘 되길 바라고 응
원하면서 청년도전지원사업처럼 노력과 진심
을 꾸준히 지켜봐 주는 프로그램이 있어 다행
이라고 생각했어요.

**Q 5개월간 참여한 과정을 토대로 쓴 수기
'칭찬은 고래를 꿈꾸게 한다'가 우수사례
공모전 청년 부문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글쓰기 공모전에 자주 참여해 왔
는데, 흔히 그렇듯 수상 혹은 인정을 받고 싶어
서였습니다.(웃음) 그런데 2024년 청년도전지
원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에 신청한 이유는 사뭇
달랐어요.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온 제 일상을
담담하게 기록하는 데 의의를 두고 상에는 연
연하지 않기로 했죠.

오히려 그래서인지 '칭찬은 고래를 꿈꾸게 한
다'는 제목이 한 번에 떠오르더라고요. 전체 프
로그램 중 필수적으로 시행하는 밀착상담 과정
에서 저를 담당한 청년두드림공간 멘토님이 칭
찬을 많이 해주신 덕분이었습니다. 더불어 고
용노동부를 비롯해 제가 마땅히 고마워해야 할
분과 담당 기관 등을 되새기다 보니 막힘없이
술술 써내려갈 수 있었어요.

예상치 못하게 최우수상이라는 큰 성과로 잘
마무리해 기쁘고, 저처럼 앞날을 고민하는 청
년이 청년도전지원사업에 더 많이 참여해 '꿈
꾸는 고래'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Q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를 밝혀 주세요.

밀착상담을 담당한 멘토님이 제게 추천한 책
<0원으로 사는 삶>에 '선행 베풀기'라는 구절
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선행을 다시 돌
려주면 일종의 빚 청산일 뿐이지만, 다른 이에
게 베풀어 점차 확산시키면 선순환으로 이어진
다는 메시지였죠.

이러한 글을 읽으면서 저 역시 청년도전지원사
업과 안양시, 그리고 멘토님으로부터 받은 긍
정적인 에너지를 사회와 나눠야겠다고 다짐했



습니다. 나아가, 사회에서 선망하는 지위나 직
책에 흔들리기보다는 업(業)의 본질에 집중하
며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공공기관 흥
보 분야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명확히는 근로
현장과 청년 정책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해보
고 싶습니다.

**Q 마지막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에 관심
있는, 같은 청년 세대에게 응원의 메시지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막연한 진로로 인해 불안한 심정은 청년세대라
면 누구나 다르지 않을 듯합니다. 저 또한 퇴사
이후 한동안 밖에 나가지 않을 정도로 앞날을
고심했죠. 그런데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해
보니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처럼 그저 가만히
있기보다는 자그마한 시도를 해보는 결정 자체
가 곧 커다란 도약이더군요. 적극적으로 해보
겠다는 자세가 환경을 바꾸고, 나아가 좋은 방
향으로 자신을 이끌기 마련입니다. 청년도전지
원사업을 계기로 더 눈부시게 발전할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시민들의 삶터를 더욱 똑똑하고 편리하게

스마트 도시 전문가

도시가 똑똑해지고 있다. 시민들에게 도시를 이루는 각종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각 인프라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솔루션을 기획·추진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진화하고 있는 것. 그 중심에는 '스마트 도시 전문가'가 존재한다.

글 강진우



'도시'와 '스마트'를 잇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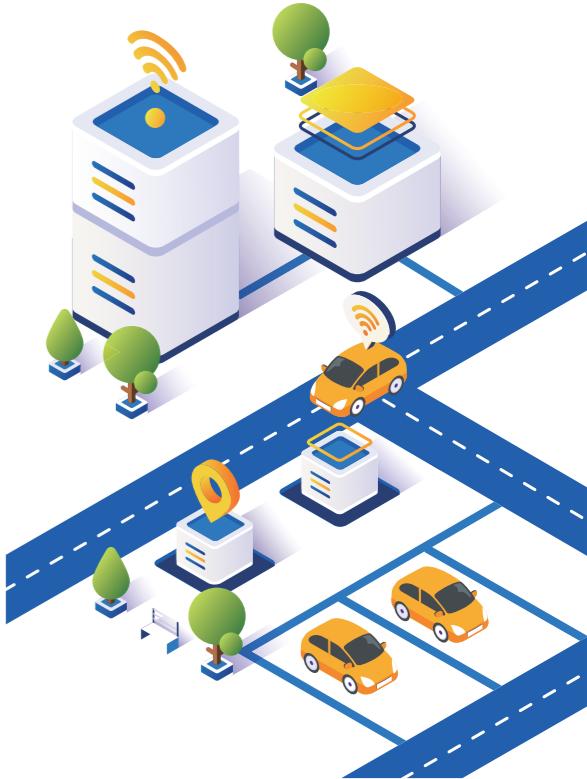
온갖 가전기를 스마트폰 하나로 제어·연동하는 집이 많아지고 있다. 한여름에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에어컨과 제습기를 미리 켜 놓고, 겨울에는 보일러를 미리 틀어 집 안을 따뜻하게 데워 놓는 식이다. 거주인의 요구 조건에 맞춰 자동으로 기기 간 정보를 주고받으며 실내 상태를 사시사철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기도 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처럼 사람의 삶을 편리하고 쾌적하게 만드는 스마트한 풍경이 특정 주거지를 넘어 도시의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세상은 이런 도시를 '스마트 도시'라고 부른다.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정보통신기술 등 이른바 '스마트 기술'을 곳곳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시민들의 일상을 편리하고 쾌적하게 만드는, 이를 그대로 '똑똑한 도시'다.

최근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스마트 도시 전문가'는 이 같은 스마트 도시를 기획·설계하고, 스마트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서비스와 시스템을 설치·관리한다. 또한 교통·에너지·수도·하수·폐기물·학교·병원 등 도시 전체에서 쓴아지는 각종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안과 문제를 신속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과 중·장기적 도시 정책 수립을 돋는다. 요컨대 스마트 도시 전문가는 스마트 도시를 만들고,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다.

'미래 도시의 기본틀'을 만들어 가다

물론 한 명이 이 모든 일을 수행할 수는 없다. 따라서 스마트 도시 전문가는 각자의 전공과 특기에 따라 도시 및 교통 설계, 도시 디자인, 사물인터넷 개발, 지리 정보 분석 등 분야를 세분화해 활동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를 기획·관리한다는 업무상 대전제가 깔려 있기에, 스마트 도시 전문가로 자리 잡으려면 도시공학·도시계획학 등을 전공하는 것이 유리하다. 정보통신기술이 스마트 도시의 필수 요소이다 보니, 이와 관련된 공부를 하는 것도 좋다. 최근 각 대학에서 스마트 도시의 구성 요소에 관한 지식과 전문성을 전반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미래도시융합공학과·스마트시티공학부와 같은 학



과를 신설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아울러 도시계획기술사·도시계획기사·교통기술사·교통기사·교통산업기사·도로 및 항공기술사 등의 자격증도 취득한다면 스마트 도시 전문가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다.

스마트 도시 전문가는 정부·지자체·민간의 도시계획 사업에 참여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국책연구소·건설사·정보통신사 등 다양한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 스마트 도시가 미래 도시의 기본틀로서 자리를 굳히고 있는 만큼, 스마트 도시 전문가가 활약할 수 있는 무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넓어질 전망이다.

01 재활치료 중심의 공공의료기관 '근로복지공단 구미의원' 개원



4월 23일 경북 구미시 관내 최초의 공공의료기관인 '근로복지공단 구미의원'이 개원, 본격적으로 외래재활센터 운영을 시작한다. 구미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서울, 광주, 부산에 이어 네 번째로 문을 연 재활전

문의원이며, 산재근로자와 지역주민,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전문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위치는 구미시 인동가산로 14에 자리 잡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총 1,081㎡으로 진료실, 집중재활치료실, 작업치료실, 작업능력평가실 등을 갖추고 있고, 경력이 풍부한 재활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의 의료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02 전국 건설현장 집중점검 실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제8차 현장점검의 날에 최근 화재, 도로·터널 붕괴 등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조치를 집중점검한다. 이번 현장점검의 날에는 지방고용노동

관서별로 위험 현장을 선정하여 감독·점검, 기관장 현장 방문, 캠페인·교육 등을 실시하여 건설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긴장감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한편, 1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은 공단의 민간기술지도 사업과 연계하여 민간 전문기관이 주요 위험요인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기술 지원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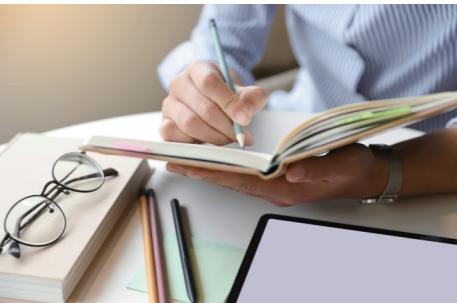
03 고용노동부 - 중소벤처기업부 협의체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직무대행 김민석 차관)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4월 15일, 전략적 인사교류의 후속 조치로 「전략협업 협의체」를 개최했다. 두 부처는 만성적인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두 부처는 올 한 해 동안 추진 할 협업과제의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협력체계 구축 및 성과 창출·확산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협의체 이후 매월 1회 전략협업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성과 창출을 위해 과제별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04 원하는 훈련을 반값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훈련을 스스로 선택하여 참여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주도 훈련 사업'을 신설하고, 지원이 가능한 훈련과정 풀(Pool)을 공고한다. 이 사업은 근로자가 필

요한 직무훈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고, 교육훈련비용의 50%를 지원하여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의 부담을 완화하는 새로운 혁신형 훈련이다. 훈련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HRD4U 홈페이지에서 참여 가능한 과정을 살펴보고, 원하는 과정을 선택하여 해당 훈련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05 전기차 정비인력 양성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4월 7일, 경기도 용인시 '기아 오산교육센터'에서 전기차 정비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을 추진하고자 기아㈜, 오토큐(한국종합오토큐연합회, 전국기아오토큐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다. 이에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전기차 기술을 가진 '기아㈜', 정비인력이 필요한 '오토큐'가 모여 민·관 협력을 통한 전기차 정비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추진하고자 '산업구조변화 등 대응 특화훈련'을 5월부터 개시한다. 훈련생들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06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확대



정부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을 강화하고 기본적 근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4월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최근 건설경기 위축

에 따라 건설업의 임금체불이 심화되고 있어 체불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지급하도록 하는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의 적용대상 범위를 도급액 5천만 원 이상의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서 3천만 원 이상의 공공 발주 건설공사로 확대 시행한다.

07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시작



고용노동부는 4월 7일부터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어려워하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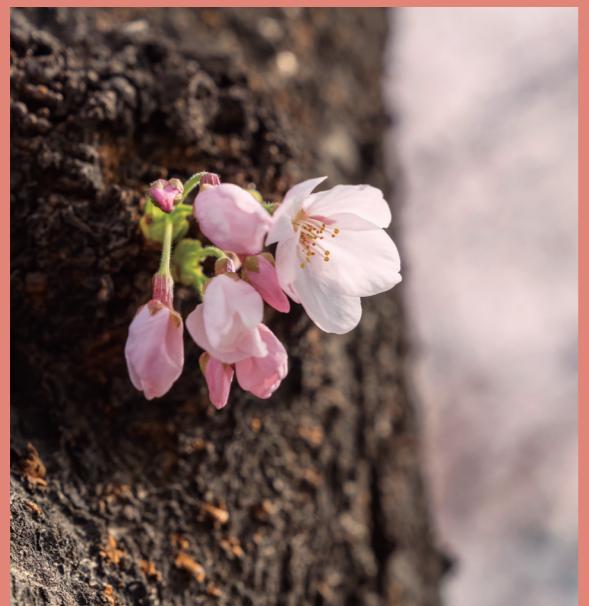
인노무사 등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관련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누구나 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과 「취약분야 컨설팅」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사업 참여 신청 방법 및 구체적 지원 내용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08 '구글코리아'와 청년 AI 역량 강화 MOU 체결



고용노동부는 4월 1일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구글코리아에서 "청년의 인공지능(AI) 역량 강화를 위한 고용노동부-구글코리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글코리아에 "청년도약 멤버십 가입증서"를 수여했

다. '청년도약 멤버십'은 기업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운영하는 청년친화적 프로그램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민간 파트너십 선도 모델로서, 2021년 삼성전자 등 11개사로 시작되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구글코리아는 구글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인공지능(AI) 강좌인 "구글 AI 에센셜(Google AI Essentials)"을 청년 5만 명에게 제공한다.



하늘길에서 누리는 벚꽃놀이

마포구 합정

우리가 계절을 향유하는 방법은 그 계절에만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을 해 보는 것이다. 유독 짧은 봄, 짧은 기간 동안 가장 화려하게 피었다 지는 벚꽃을 눈에 담아두는 것은 어떨까. 멀리 가지 않아도 된다. 서울 합정 하늘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출날리는 벚꽃잎을 잡는 행운을 누릴 수 있다.

글 김민영 사진 정우철

벚꽃이 아름다운 하늘길

만물이 움튼다는 계절 봄에 꼭 해야 할 일을 정한다면, 단연코 벚꽃 보기가 아닐까. 길게는 2주, 짧게는 1주 동안 화려하게 피고, 점진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인지 많은 사람이 봄이 되면 ‘벚꽃구경’을 버킷리스트에 넣는다.

합정 하늘길은 도심 속에서 벚꽃을 마음껏 구경할 수 있는 골목길 중 하나다. 서울 마포구 합정역 7번 출구에서 마포새빛문화숲까지 이어지는 거리

인데, 카페, 독립서점, 맛집, 소품숍 등 볼거리가 많다. 하늘길이라는 이름은, 골목길에 칠해진 ‘하늘색’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하늘길에 접어들면 하늘색 길이 마치 이정표처럼 나 있는데, 워낙 눈에 잘 띄는 덕분에 헤매지 않고 거리를 거닐 수 있게 해준다. 골목 전봇대 곳곳에 붙어 있는 하늘길의 영어 명칭을 뜻하는 ‘스카이로드’ 표지도 마찬가지다.



하늘길 빛나무 빛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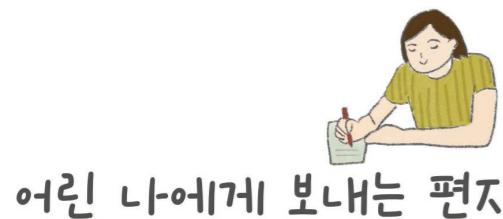
하늘길을 걷다 보면 의외로 ‘한가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 이것은 하늘길의 매력 포인트 중의 하나다. 홍대입구역부터 상수역까지 이어지는 ‘레드로드’가 변화한 느낌이라면, 하늘길은 이와 반대되는 한가하면서도 조용한 감성을 선사해 상반되는 매력으로 사랑받고 있다. 하늘길 골목골목을 지나 도로변으로 나오면, 봄날에만 누릴 수 있는 하늘길의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진다. 도로 양옆에 벚나무가 길게 이어지는데 이 벚나무는 봄날의 하늘길을 더욱 낭만적이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봄바람에 흘날리는 벚꽃잎이 카페와 여러 상점, 숙들과 어우러져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마포새빛문화숲 넘어 홍대 레드로드까지 이어지는 벚꽃길은 마포구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노력 중 하나다. ‘길이 살아야 도시가 살고, 경제가 산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마포구 곳곳의 골목길에 테마를 부여했고, 아름다운 경관을 위해 계절별로 어울리는 꽃을 심어 거리를 단장했다. 하늘길에 벚나무를 심은 것도 이런 이유였다. 지금은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벚꽃길 스템프 투어’ 등 다양한 봄맞이 행사를 열며 이곳을 찾은 사람들에게 봄날의 추억을 선물하는 중이다.



걷고, 보고, 느끼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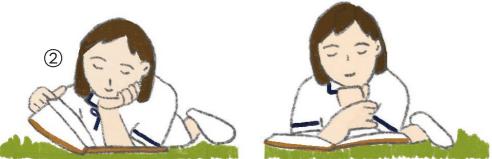
방문해 보는 것도 좋다. 한강변에 자리하고 있어 탁 트인 한강의 풍경을 눈에 담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절두산순교성지를 지나 한강길을 따라 조금 걷다 보면, 또 다른 벚꽃길이 펼쳐진다. 합정에서 망리단길로 이어지는 희우정로 벚꽃길은 마포구의 숨은 벚꽃 명소다. 벚꽃 터널이 도로를 가득 메우는데, 하늘길 벚꽃과는 또 다른 면이 있다. 최근에는 SNS에서 벚꽃 명소로 소문이 나면서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추세다. 이렇게 합정은 봄을 맑은 동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황홀한 벚꽃과 어우러진 동네의 풍경이 봄날을 더욱 운치 있게 해준다. 올해 유독 짧다는 봄을 만끽하고 싶다면, 더 늦기 전에 동네 가까운 곳으로 가보자. 봄의 끝자락을 잡고 있는 꽃잎들이 반겨줄 테니.



어린 나에게 보내는 편지



안녕? 난 어른이 된 너야.
20년 전의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세상은 자꾸 변해가고 정해진 정답은 없단다.
너를 다른 사람의 정답에 맞추려 하지 말고



다양한 사람들과 서로의 생각들을 나누며
다양성과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익혀보라면



풍부한 마음으로 더 넓은 세상을 즐길 수 있을 거야.



초목이 짙어져 가는 계절이야.
막 자라나는 연둣빛 나뭇잎 같은 너를 응원해.

융합력 현대사회의 생존력



융합력

현대사회의 생존력



얼마 전 SNS를 하다가 두 개의 물건을 결합해서
원하는 용도에 맞는 물건으로 뚝딱 만드는 영상을 봤어요.



융합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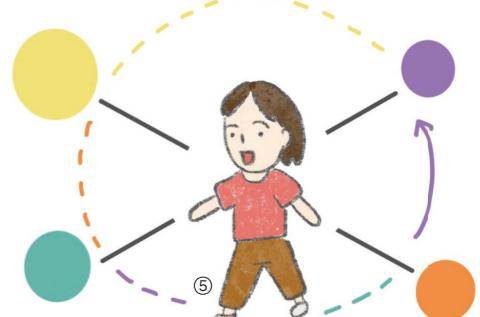
융합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를 연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반작이는 아이디어와 SNS 소통 능력이 더해진
그 사람만의 고유한 결과물을 보며 흥미로웠습니다.
자연스레 다음 영상이 올라오는 날도 기다리게 되었지요.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융합력을 활용해 만들어진
다양한 물건, 콘텐츠, 문화, 장소들이 곳곳에 있답니다.



다양한 문화가 결합되어 새로운 것을 탄생시키는 시대예요.
융합력을 키우는 데에는 특별한 재능보다
다양한 것을 연결해 보는 꾸준한 시도가 중요해요.



● 퍼스널 컬러 자가 진단법

퍼스널 컬러는 20세기 초 스위스의 화가 요하네스 이텐이 초상화를 그리던 중 피부와 머리카락에 따라 옷이나 배경의 색깔을 달리하면 그림의 조화로운 느낌을 한결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퍼스널 컬러의 색과 세부 톤을 구분하는 체계가 서서히 정립되면서 피부·눈동자·머리카락 색에 따라 웜(Warm)톤과 쿨(Cool)톤으로 나눈 뒤 이를 봄라이트·브라이트, 여름 라이트·뮤트, 가을 뮤트·다크, 겨울 브라이트·다크로 세부 분류하는 일반적인 퍼스널 컬러 진단법이 정착됐다.

퍼스널 컬러를 제대로 진단하려면 얼굴 아래에 수십 가지 색의 천을 대보는 드레이핑(Draping)과, 이 과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잘 어울리는 색을 진단해 줄 전문가의 식견이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에는 퍼스널 컬러를 직접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실제로 이를 활용하면 자신의 퍼스널 컬러를 어느 정도 구분해 낼 수 있다.

퍼스널 컬러 자가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피부 본연의 색을 확인하기 위한 흰색 상의, 색깔 왜곡을 막는 자연광 또는 백색 조명, 드레이핑에 필요한 다양한 색깔의 천 또는 컬러 키트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먼저 자신의 피부 톤을 확인하려면 손목 안쪽의 팔줄을 살펴보면 되는데, 팔줄이 초록색을 띠면 웜톤, 파란색 혹은 보랏빛을 띠면 쿨톤일 가능성이 높다. 명도 테스트도 생각보다 간단하다. 흰색을 얼굴 가까이 댔을 때 잘 어울리면 밝은 피부, 베이지나 그레이가 어울리면 어두운 피부인 경우가 많다. 이후 톤과 명도에 맞춰 다양한 색상을 얼굴에 대보고 그중 생기 있어 보이는 색을 선택하면 된다. 최근에는 자연광에서 찍은 정면 사진을 업

자기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색을 알면, 자연스럽게 인상이 더 좋아지고, 스탠일링도 쉬워지고, 자신감도 생겨요

로드하면 AI가 퍼스널 컬러를 자동으로 진단해 주는 앱 서비스도 생겼으니, 이런저런 준비를 할 상황이 안 된다면 활용해 볼 것을 권한다.

● 퍼스널 컬러 활용 Q&A

퍼스널 컬러의 활용 범위는?

퍼스널 컬러는 의상·헤어·메이크업뿐만 아니라 액세서리·안경·네일 등 몸에 착용하는 모든 패션 소품에 적용할 수 있다. 특히 면접·결혼식·촬영 등 보다 조화롭고 명료한 이미지가 필요한 날에 퍼스널 컬러를 적극 고려하면 큰 도움이 된다.

퍼스널 컬러 활용 유의사항은?

퍼스널 컬러 진단 결과에 갇혀 있기보다는, 위스트 컬러를 피하고 나머지 컬러들을 시간·장소·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색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사라질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퍼스널 컬러의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

선호 색과 퍼스널 컬러가 다를 때?

당연한 이야기지만, 퍼스널 컬러로 진단된 색을 매일 사용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날에만 퍼스널 컬러를 활용하거나 포인트 색으로 써보면서 색깔과의 친근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 얼굴 가까이에 있는 소품에는 퍼스널 컬러를, 하의·액세서리·가방·신발 등에는 선호하는 색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부드러운 말이 만드는 직장 문화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에서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좌우할 때가 많다.
특히, 직설적인 표현이 자칫 공격적으로 들릴 수 있는 환경에서 “쿠션어(Cushion Words)”는
무심한 표현이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도록 폭신한 완충재가 되어줄 것이다.

글 차유미 자료 <존중하고 배려하는 감성 대화법>, <고수의 어휘 사용법>

기분이 태도가 되어서야!

“말 한마디가 천 냥 빚도 갚는다”라는 옛말이 있다. 반대로 “말했다가 본전도 못 찾는다”라는 속담도 있다. 말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는지를 알려주는 속담들이다. 일과시간 대부분을 함께 지내는 직장 동료는 어쩌면 가족보다 더 많은 대화를 나누는 사이인지도 모른다. 직장은 ‘일’이라는 성과를 만들어야 하는 사회인만큼 솔직한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너무 직설적으로 말을 듣게 되면 감정이 상하게 된다. “빨리 해 주세요” “내 일이 아닌데요” “못 합니다” “안 됩니다” … 감정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느끼는 반응이다. 그렇다 보니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 표정이 변하거나 귀가 빨개지는 등의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다. 실망하거나 화가 날 수도 있다. 이럴 때 냉담한 반응을 보이거나 무성의한 태도를 취한다면 이는 직장 내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쿠션어는 단순히 부드러운 말투가 아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의 표현이다. 부드러운 표현은 동료들 간의 신뢰를 쌓고, 더 유연한 협업을 가능하게 하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이 거부감 없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되어 효과적인 소통이 가능하다. 직접적인 거절이나 요구가 불편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쿠션어는 대화의 마찰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직설적인 표현

이거 빨리
해 주세요.

이 문서 검토해
주세요.

이건 못 합니다.

이건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이거 잘못됐어요.
다시 하세요.

쿠션어 사용(예시)

가능하다면 이 부분을
먼저 처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시간 관찰으시면 이 문서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현재 일정상 바로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을 고민해 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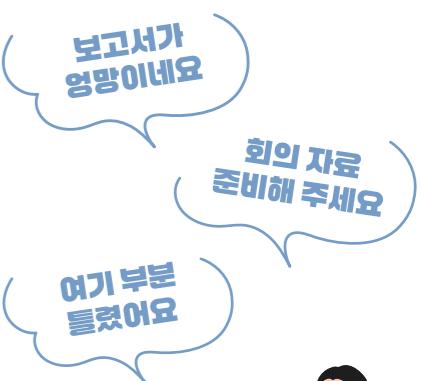
이 방법도 고려할 수 있지만,
조금 더 효율적인 대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논의해 볼까요?

이 부분을 이렇게 수정하면
더 나아질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드러운 말이 프로를 만든다

쿠션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직설적인 문장을 쿠션어를 활용하여 변환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다. 또한, 직장 내 실제 상황을 가정한 역할극을 통해 자연스럽게 쿠션어를 사용하는 법을 익힐 수도 있다. 쿠션어는 단순히 예의 바른 표현을 넘어서, 직장에서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전략적인 도구이다. 앞으로 대화에서 쿠션어를 적극 활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부드러운 말이 만드는 긍정적인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길.

자, 다음의 말을
'나만의 쿠션어'를 사용해서 표현해 보자!



「월간 내일」과 함께 하는 QUIZ



「월간 내일」 2025년 5월호를 읽고 모의고사에 응시해 보세요!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단답형 제출범위: MOEL 아카이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Hint!

4월 1일 ~ 4월 30일

단답형 제출범위: 체인지업! MOEL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된 특정 기간을 말한다.
이 기간 동안 정부와 관련 기관, 기업 등이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실제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인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이 기간으로 지정했다.

Hint!

4월 1일 ~ 4월 30일



참여방법 | 이벤트는 QR코드를 통해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Step 1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Step 2 이벤트 응모 입력 후 제출



* 참여기간
2025년 5월 20일(화)까지

4월호 당첨자 축하드립니다!

* 당첨자에게
별도로 연락드립니다.

김○하(5736) 김○우(0502) 천○용(2147) 김○재(6732)
강○숙(4062) 김○은(3698) 최○길(4246) 이○민(4259)
김○민(1930) 고○민(7431)

「월간 내일」 구독 및 구독 해지 방법

- ① 「월간내일」 웹진에 접속합니다.
- ② [QUICK MENU]를 클릭하고, '구독신청 및 해지'를 클릭합니다. 또는 홈페이지 제일 아래의 '구독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③ 구독하시려면 '신청하기' 버튼을, 구독을 해지하시려면 '해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구독 및 해지를 위해 정보입력 및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가까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제도·정책 소식이 궁금할 때,
고용노동부와 소통하고 싶을 땐
QR를 스캔하세요!

